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본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7. 28 ~ 2024. 8. 17 제303호

美 남침례회 지도자, “성경적 원칙 지키며 진보주의 영향 막아야”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엘지비티(LGBT)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것처럼 미국 남침례회(SBC)도 앞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침례교 성도들이 좌익의 영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침례교 리더십 센터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윌리엄 울프(William Wolfe)는 남침례회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좌경 의식화(woke)' 관점을 취하면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 편

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울프 이사는 남침례교 총회에서 “용감하고 성경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침례교 지도력을 양성하여 기관의 회복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례교 리더십 센터가 채우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가 진보주의적 가치나 이념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는데, 남침례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적으로 변하거나 좌경 의식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침례회가 성경적 원칙을 지키며 진보주의의 영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프는 ‘데일리 시그널 팟캐스트’에 출연해 교회 여성 리더십 문제, 체외 수정에 대한 침례교의 새로운 입장,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SBC의 공공 정책 부서)에 대한 좌파의 기부문화, 오늘날 문화에서 인기가 없는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문화 혁명과 성 혁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창조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다. 동성애를 긍정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지 않고, 트랜스젠더주의와 선택 대명사에 대해 선을 긋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서 세상과 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PNEWS]



출처: Unsplash의 Annie Spratt



홍병진 장로 (보람세종시민교회)

“함께 태권도 선교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햇살이 따사로운 6월, 기독교인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를 찾았다. 운동장 옆에 자리잡은 홍병진관 입구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홍병진 장로를 만났다. 홍 장로는 1층 로비 옆에 마련된 대규모 태권도 전용 체육관

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마침 한 여학생이 체육관에 내려와 홍 장로에게 자세를 바로하고 깎듯하게 인사했다. 홍 장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관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10대 청소년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은 태권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태권도라는 그릇 속에 담긴 홍 장로의 기나긴 인생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6)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놀라운 기적의 연속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적은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이렇다 할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야담으로부터 열 세대가 지났을 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사람의 수명이 길었으므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또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데 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다. 성경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힘으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사탄을 따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깊었으므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오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창세기 6:5,11,12 KLB)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항

상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죄악이 깊어지고, 타락과 혼란이 더해지면서 세상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사악한 곳이 되어 갔다. 또한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에만 몰두했다고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으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외면하려는 사람의 악한 생각은 더해 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너진 간격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도 찾기 힘들어졌다.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사람의 마음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면서, 죄는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죄에 팔아 버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적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다리가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

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신다. 아니, 묵인하실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한탄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떠한 논리와 철학을 만든다 해도, 또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마련한다 해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탄자니아, 성경 2300부 전달... 영혼들이 소성케 되길



▲ 성경을 읽고 있는 탄자니아 성도들. 제공: 김복 선교사

탄자니아 교회의 수요 예배 날이다.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찾은 소년의 손가락이 말씀 한 구절을 짚었다. 어떤 말씀일까?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 19:7) 소년의 영혼이 소성되는 운명적 순간이다. 애석하게도 이 나라에서 성경은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초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탄자니아에 전달됐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길 기도한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남하하며 탄자니아의 북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슬람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시 145:20) 원수의 손에서 탄자니아의 교회를 건져내시고(사 38:6), 우는 사자 같이 교회를 삼키려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를 기도한다(시 23: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 30:5) [GPNEWS]

“연명의료 중단이 곧 안락사 아니다”

“생애 말기에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안락사는 아닙니다.”

17년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백명의 임종을 지켜온 최화숙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전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는 최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개최한 ‘노화와 죽음, 생애말기 돌봄과 연명의료’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며 “나이가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완치 가능성이 없고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로 예측되는 환자와 가족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란 단순히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의료활동이다. 최 목사는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서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출처: Unsplash의 Marcelo Leal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자에게는 연명의료 대신 생애말기 돌봄이라는 호스피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연명의료 중단이 곧 안락사로 가는 길이라는 오해로 인해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동의 아래 담당의사가 결정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말기 상태의 환자에게는 완치를 위한 용량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통증 조절과 함께 증상조절을 위한 항암제 투

여나 치료 등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와 처리를 하게 된다.”며 “말기 상태에서 바로 호스피스로 전원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연명의료를 연장할 경우, 환자나 가족이 혼란 가운데 방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목사는 “세계보건기구(WHO)도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 시기에 이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수명이 남은 상태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라포’를 형성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튀르키예, 교회 예배 장소 허가 계속 거부

튀르키예 정부의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남동부에 위치한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이 새로운 예배 장소 건설을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거절됐다고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이 최근 밝혔다. 2019년 세워진 디야르바키르교회는 교인 수 증가로 인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나 당국은 반복적인 요청에도 허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가를 계속 거부하거나 무시해왔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적 대우로 예배를 위한 토지 허가를 거부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악행을 파헤쳐주소서. 정부가 교회를 압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美 USCIRF,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종교자유 침해 주요 원인 지목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을 종교자유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국무부에 파키스탄을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모닝스타 뉴스가 최근 전했다. 2024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 소녀 강제 개종, 소수 종교인에 대한 표적 폭력 등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남용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법을 용인해 소수 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파키스탄 정부와 무슬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되는 박해에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주 퀴어행사 반대 집회 열려

제주에서 엘지비티(LGBT) 퀴어행사가 열린 가운데 ‘거룩한방과제 제주도민연대’가 맞불 집회를 열어 동성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제주 퀴어프라이드 집행위원회는 13일 서귀포시 자구리문화예술공원에서 ‘2024 제5회 제주퀴어프라이드’를 개최해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날 ‘거룩한방과제 제주도민연대’는 300여 명이 참가해 동성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정우 거룩한방과제 제주도민연대 추진위원장은 “제주 특성상 전통 가족 질서를 중시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동성에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거룩을 잃어버린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심령에 들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단체를 통해 이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백성 되게 하소서. [GPNEWS]

독일 Z세대, 교회로 돌아오다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독일에서 젊은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18~29세의 젊은 세대인 Z세대 독일인들은 일종의 예외적 존재다. 에르푸르트에 본사를 둔 인싸-콘솔레(Insa-Consulere)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독일 성인의 11%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 독일인 중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2% 미만이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절반의 독일 인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싸-콘솔레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약 48%가

하나님을 믿는 반면, Z세대는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세대 독일인은 조부모 세대보다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열심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충분할지는 불분명하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맹은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에 거의 700만 명의 교인을 잃었다. 그리고 2022년에만 50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로마가톨릭 교회를 떠났다. 당시 독일에는 210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다.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까지 약 4만 개의 독일 성당과 예배당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GPNEWS]





태국, 200년 선교에도 교인 1%대...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해야”

태국 선교가 시작된지 200년이 넘었음에도 현지 교세가 미약한 원인으로 태국 교계의 세속화와 불신자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혔다.

현지 사역자들은 태국 선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현지인들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라고 조언했다.

미국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최근 태국 선교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현지 정부의 우호적 태도 속에서 지난 200년간 태국 선교가 진행됐음에도 현지 교인 비율이 1%대 정도라고 밝혔다.

선교연구단체 글로벌 미션 데이터베이스(Global Mission Database)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을 포함한 태국 기독교인이 총인구 약 6980만 명 가운데 98만 명가량으로 1.4% 수준이다. 1828년부터 개신교 차원에서 태국 선교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저조한 숫자다. 이를 놓고 CT가 5명의 현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에게 원인 및 해결책을 물어본 결과, 교인 대부분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속인과 비슷한 교인들의 삶, 복음 전파 저해 요인

지난 60년간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앨런 유뱅크(Allan Eubank) 선교사는 현지 교계의 성장이 느린 이유로 교인들이 세속인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우리는 종종 권력과 물질 및 성적

유혹에 굴복했다.”며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 않는 등 매우 교만했다.”고 말했다.

나티 탄찬퐁(Natee Tanchanpongs) 방콕 그레이스시티교회(Grace City Bangkok) 담임목사는 여러 해 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물질주의와 계급제도가 교회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며 “이는 태국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콕 수엠펜타넌 제4교회(4th Church Suebsampantawong) 지도자 말리 분잇(Mali Boon-Itt)은 태국교회는 부패가 심하고 교인 간 소송이 많으며 이는 불신자 태국인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누롯 파니치(Nurot Panich) 방콕 그리스도의사도행전교회(Acts of Christ Church in Bangkok) 담임목사도 교회들 안팎에 갈등과 문제가 많고 단합이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관리자가 아닌 상사처럼 행동한다.”며 “선배 목회자에게 반대할 수 없고 항상 선배 의견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에 익숙한 태국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저조한 교계 성장의 이유로 꼽혔다.

치앙마이신학교(CMTS) 칼 달프

레드(Karl Dahlfred) 교수는 2020년 개인 홈페이지 글에서 태국의 불교와 국가 정체성이 강하게 상호연관된 점이 현지 교계 성장이 느린 이유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태국인 대다수가 자연스레 자신을 불교인으로 여기는 데다 불교문화에 익숙한 탓에 기독교 개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뱅크 선교사는 태국 선교 시작 후 10년이 지나서야 현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신지와 우리에게 왜 그분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국인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구원을 알려주는 작은 소책자 이트랙트(Itract)를 만들었다.”며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말리 분잇 여사도 “불교인들은 불교 세계관과는 다른 기독교 전도자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소통하라.”고 말했다.

예수전도단 프론티어 미션 태국 핏사눌록 지부(YWAM Frontier Missions Thailand Phitsanulok) 코디네이터 마누엘 베커(Manuel Becker)는 “태국의 주요 행사에는 불교적 요소가 포함된다.”며 “태국인이 된다는 건 곧 불교인이 되는 것과 같으며 서구 기독교의 수용



태국의 어린 이들. © 복음기도신문

은 태국인에게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참된 인간관계 맺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전해야

이에 대해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이 현지인들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0년간 태국 치앙마이 등에서 헌신한 헨리 브라이덴탈(Henry Breidenthal) 선교사는 지난해 6월 CT와 인터뷰에서 현지인이 (주를) ‘믿고 신뢰한다.’는 개념을 수용하려면 오래 걸린다고 태국 선교에는 장기적이고 진솔한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암시했다.

그는 태국인에 대한 깊이 진심어린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현지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학생들과 동반자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등 진심된 노력을 기울였다고 높이 평가받았다.

1999년부터 방콕에서 사역한 켈리 힐더브랜드(Kelly Hilderbrand) 방콕성경신학교(Bangkok Bible Seminary) 교수는 올해 3월 CT에 기고한 글에서 “태국인은 매력과 힘이 느껴지는

대상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며 “그들은 교인들의 남다른 사랑과 포용 및 정직과 배려를 보고 주님께 나아온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지난 50년간 사역한 난타차이 메주돈(Nantachai Mejudhon) 선교사도 지난해 5월 같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많은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 사정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의무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관계가 돈독해지면 무엇이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도 당신의 말을 경청해 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인들과 참된 우정을 쌓았고 그들과 대립하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유익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니치 목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과 학교 및 시장 등에서 우리 삶이 좋은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GPNEWS]



C.H.

임신 36주 낙태 영상 공개... 법률 공백으로 윤리적 혼란이 가져온 ‘태아 살인’ 참극

최근 임신 36주의 태아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낙태 관련 법안이 5년째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윤리적 혼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초보아빠수첩에 따르면, 태아를 임신한 지 10개월째인 임신 36주는 입원용품과 출산용품을 챙겨두고 바로 병원에 가도록 준비해야 하는 태아가 출산할 직전의 시기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집필된 이 책자는 임신 5개월(20주) 상태의 태아는 청각과 함께 오감이 발달해서 대화를 통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36주의 태아 낙태는 법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

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 제1064조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고 상속순위에서도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유언에 따른 권리주체가 되는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의 20대 여성이 자연 분만,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기 직전의 완전한 생명체를 날카로운 메스로 사지를 절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여성의 의뢰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태아를 낙태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한 윤리적 혼란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난 15일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불거진 윤리적 혼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여성이 공개한 영상의 진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입법부가 이 같은 후속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결과, 현재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해 낙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술행위로 태아를 사망케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같은 개인의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낙태와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국내 상황이다.

2019년 당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재판관 7인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여 임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통해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신 22주 이후 태아가 독자적 생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통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나 정부가 개선 입법기한을 3년 이상 넘겨 우리나라에서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태권도로 복음 전하는 홍병진 장로 (보람세종시민교회)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글로벌 태권도 교육연맹 대표를 맡고 있고,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와 음성캠퍼스에서 12학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에서는 세종시태권도협회 고문과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역할이 많으시군요. 태권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어머니가 일찍 홀로 되시고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가끔 오셨어요. 학교와 동네에서 까불까불한 애들이 어른들이 없고 제가 만만하니 까 괴롭혔는데 할머니가 가서 야단쳐봤자 통하지 않았어요. 저 때

때는 머리 뺏뺏 깎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더군요. 친구가 어느 날 그런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와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선수가 필요하다고요. 아마 전도하려고 그런 구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받을 들이게 됐어요. 그러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예요. 졸업 후 태권도 사범 생활을 하면서 결핵을 얻었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천국에 간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가봐야지 알겠구나.’ 이런

으로 가게 됐을 때였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죠. 하루는 금강변을 걷는데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바위에서 쉬었어요. 이렇게 앉다가 괜찮아지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이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는 결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 서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기도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듯 기도했는데, 그 뒤로 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빨리 호전되어 몸이 회복됐어요. 이후엔 주님과 깊어져서 자연스럽게 선교단으로 이어졌어요.”

결핵 회복 후 태권도 통해 선교 결심

- 어떤 선교단인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태권도가 내 신앙이었다는 걸 보게 됐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이상 같은 태권도를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재 내 도장에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온 믿지 않는 영혼들 수백 명이 내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저 혼자 그런 가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운동을 안 하고 유단자들만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설프니까 막 그냥 열정만 가지고 운동 가르치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훈련생들의 많은 질문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1987년도에 서울에 있는 체육인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다 88올림픽 홍보차 태권도시범단으로 미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오게 됐죠. 이후 미국에 함께 다녀온 동료들 중 7명이 세계선교에 뜻을 두고 의기투합해서 미국에 나가 6개월을 순회하면서

태권도 선교를 했어요.”
- 태권도 선교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태권도복을 입고 시범을 보이며 기타 치고 찬양하고 울동하고 간증을 했어요. 사실 그 시절엔 미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준비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비자가 동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어렵게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우리가 간다고 잡아뉘던 스케줄이 6개월이 지나면서 모두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 우리를 초청하고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어렵게 한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예배 때 시범과 태권도 찬양 울동을 했어요. 그 소식이 미주 신문에 소개되면서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공연을 했어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후배, 제자들이 모여 대전에서 처음엔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 시범단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태권도 선교교회(ITM)’로 자라게 됐어요.”
- 선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장들이 매주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순수 자비량으로 교회 집회나 해외 선교를 꾸준히 했어요. 나중에 단원이 한 20여 명까지 됐고 지방에서 가장 큰 시범단이 됐어요.”
-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교회 사역에 순종한 셈이군요.
“그런데도 바라는 목적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었는데, 관장들은 이미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어렵고, 사범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범단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하나까 가장 순수하게 자기 미래와 꿈을 결정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지요. 태권도 선교 시범단이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선교사라도 하고 싶다.’ 해서 마하남을 통해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국가대표 시범단도 14명이나 나왔어요. 지금은 오랫동안 제가 학교를 섬기면서 그 시범단은 아쉽게도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없어졌지요.”

다음세대 인성교육에 안성맞춤인 태권도

홍 장로가 글로벌선진학교와 인연이 시작된 것은 2004년, 태권도 수업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은 2-3개월 만에 홍 장로가 지나가면 ‘태권’ 하며 거수경례를 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태권도 정신을 접목시킨 그의 가르침은 인성교육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어느새 몸에 균형이 잡히고 우렁찬 기압소리와 달라진 눈빛, 깎듯한 예의범절이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옷처럼 입혀졌다. 태권도를 배워갈수록 자기 방어력과 자신감이 생기자 아이들이 좀 더 여유 있어지고 관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태권도는 글로벌선진학교의 정식 교과로 채택돼 홍 장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20년 동안 다음세대를 길러왔다.
“요즘엔 학교에서 도덕 과목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니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뭘 조금 안다 하면 남들 무시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군림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 태권도는 그런 것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틀인 거예요. 글로벌선진학교는 고등학생이 되면 유단자가 되는 관문으로 의무적으로 외부 시합을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많은 것을 배워요. 겨루기 시합을 나가면 대부분 다 지고 옵니다.” [GNNEWS]



▲ 심사후 글로벌 선진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제공: 홍병진 장로

문에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외조모 삼천지교’였죠. 몇 차례 이사를 다니다 결국은 5학년 때 대전까지 오게 됐어요. 대전에 가보니까 태권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괴롭히는 애들도 혼내주고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괴롭힘 면하려고 태권도 배우

- 어릴 때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그때는 태권도를 하는 초등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보호장비도 많지만 그때는 보호장비 같은 게 없었으니까 좀 거칠고 위험했어요. 당시 도장에는 중학교, 고등학생 형들,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도복만 딱 들고 나가도 동네 건달들이 건드리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를 지금까지 쭉 하게 됐네요. 50여 년 동안 태권도를 하면서 지루해 본 적이 없고 힘들어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태권도가 저에게는 신앙과도 같았어요.”
-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한 친구가 한 교회에서 하는 교리 공부를 소개했어요. 이를 동안 했는데, 다들 눈물도 흘리고 변화가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요. 목사님은 공부 끝나자 책을 딱 덮으셨어요. ‘이제 나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이를 동안 배웠는데 뭐 기억나세요? 만약에 이 성경책을 다 알고 이해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때는 확 믿어졌어요. 그 뒤로 신앙생활의 굴곡은 있었지만 천국 소망에 대한 의심은 별로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 결핵은 좀 나아졌나요?
“결과적으로는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신탄진에 있는 체육관 사범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홍병진 장로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Y.K.



선교 통신

중동에서 요리사로 생활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슬람의 큰 절기 중 하나인 라마 단 금식 기간과 이드를 지나 중동 U국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우리 가정이 이 나라에 처음 온 2012년의 라마단은 이슬람의 짙은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개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한 이들의 라마단은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는 어느 곳에서도 피부로 와 닿았다. 차에서 몰래 숨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과 천막으로 둘러싸인 쇼핑몰의 푸드코트가 대표적인 첫인상이었다. 이 기간에 여행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리고 그 와중에 장소와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같이 금식해야 할 정도였다.

중동 U국에서 2024년 라마단은 금식 기간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전면 개방되었다. 길거리의 식당, 카페, 푸드코트, 쇼핑몰... 모두 정상 영업을 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와 차를 마시는 현지인, 지역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길에서 물과 음식을 먹고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며 중동 U국이 국제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이슬람력에 따라서, 금, 토를 쉬던 이들의 주말도 국가 간의

금융 관련 이슈들로 인해 토, 일에 쉬는 것으로 오래전 바뀌었다.

2024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발을 넣고 있는 중동 U국을 바라보게 된다. 이들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아라비아 상인의 상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중동 U국 드림을 꿈꾸며 이런저런 이유로 실로 많은 나라 사람이 상륙하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관광 상품은 날로 더해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줄지 않는다. 돈을 쓰기 위해 오는 도시! 이곳에서는 부자들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물건을 사는 것은 이미 수치가 됐다. 날로 그 화려함을 더해 가고, 먹는 것 하나에도 쇼를 보고 싶어 한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이 떠오른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인데, 하루 힘들여 번 돈으로 고작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 그런 마지막 때를 묘사한 말씀인 듯하다.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물가, 24년 만의 최대 상승, 78년 만의 폭우, 최대 강수량, 한 주에 백만 원을 넘는 집세, 사막 기후에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전쟁

과 기근, 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이 됐다. 세상은 이런 가운데 권력과 물질, 성의 노예가 됐다. 폭주 기관차처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나는 이곳에서 요리사로 생활하며 먹고 마시는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이들의 소비 풍조와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내가 정한 달 품삯을 하룻저녁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직원에게 주는 품삯을 줄이고자 휘두르는 힘에 갈 곳을 잃는 직원들이 생겨난다. 이삭이 힘들여 파 놓은 우물을 빼앗긴 것처럼, 이 땅에서 힘들여 파 놓은 내 우물을 빼앗기기 일수이다. 열정과 노력 그리고 상실과 낙담, 이 패턴이 매년 반복되며, 나무처럼 내 안에서 나이테가 하나 둘씩 원을 그리며 생겨난다.

법적으로 포교 활동이 금지된 이곳,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남모르게 외쳐야 하는 상황, 이들의 거만한 시선, 뜨내기처럼 이곳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 같이 일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모두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기 일수이다. 어디를 가나 언제나 한국 사람은 나 혼자였고 그래서 곤란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도 한 입에서 단물과 쓴 물



출처: Unsplash의 Rumman Amin

을 낼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욕하지 말고 존중의 언어를 쓰자 결심했다. 몸에 문신하고, 말의 반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요리사들을 관리하는 일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중에 진심이 닿는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했다. 주방에서 욕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상냥해진다. 내가 존중한 만큼 나도 존중을 받는다. 열심히 가르치고 팀을 만들면 이제 우물을 빼앗길 차례가 돌아온다. 그럼 내 안에 나이테 하나가 또 그렇게 생겨난다.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의 선교도 있지만, 많은 나이를 그려야 하는 선교도 있나

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6)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이 생명들이 이 말씀처럼 살아났으면 한다. [GPNEWS]

서OO/OOOO 선교사
(중동 U국)_바울선교회

복음의 능력

거듭나기를 강령하라

거듭남의 표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무사안일(無事安逸)주의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식하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야 한다.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라.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거듭나기를 강령하라. 거듭나도록 씻어주시기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절체절명으로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노력을 거부한 채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면 희망은 없고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독자편지

“선교 게시판 옆에 항상 복음기도신문을 비치해 두고 있어요”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저는 복음기도신문을 항상 애독하는 구독자 킴미니스트리 박세호 선교사입니다. 항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문을 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쉽게 뽑을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 검색이 가능하여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복음기도신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선교 게시판 오른쪽에 항상 복음기도신문을 비치해 두고 성도님들이 가져가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신문은 코로나 전에는 전도팀이 전도현장에서 전도지 대신에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

니다. 특히 복음에 관한 좋은 기사는 스크랩하여 게시하고, 난민과 북한선교 관련 기사는 요약하여 수요기도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가족이 오면 은근슬쩍 복음기도신문을 곁에 두고, 그분과의 대화 중에 관련 기사 페이지를 슬쩍 펴서 놓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그분의 관심사를 파악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기사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기도신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문을 활용해 봤는데, 아직은 신문 자체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려서 만들기에 쓰더라도 구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오려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그림이 복음기도신문의 독특성을 통해 아이들

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주민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선교사님들의 현황과 사역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 본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례들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타부족 기독교공동체의 이야기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에 있는 준모족, 카친족, 부평 카렌족 등의 기독교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복음기도신문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복음기도신문 파이팅! [GPNEWS]

박세호 선교사
(강서침례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6)

십자가 복음밖에는 거듭날 길이 없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9)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실체가 되는 존재로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너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주님께 매달려서 ‘주여 내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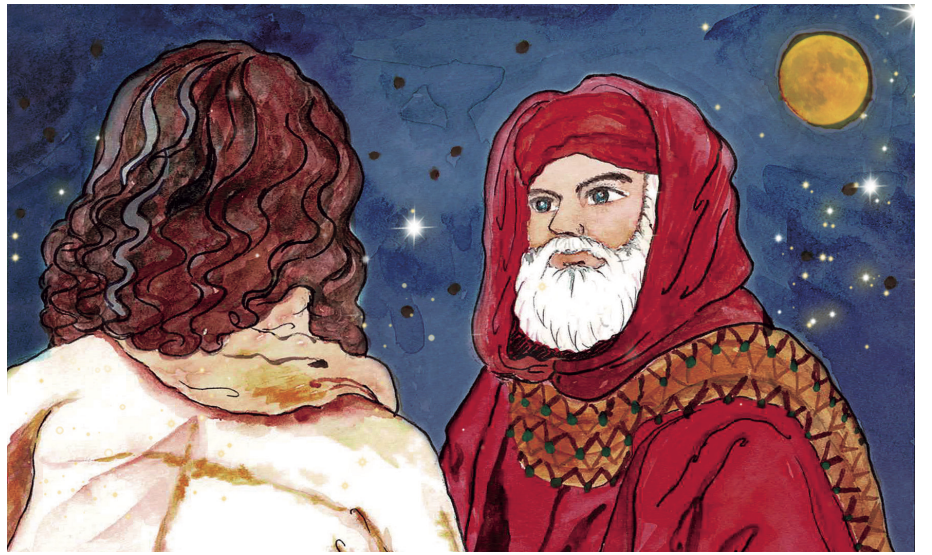
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가 막힌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목마름이 생겼던 적은 언제인가? 암에 걸려 절망적인 운명 앞에 선 사람은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을 수 없다. 성공도, 원함을 이루는 것도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든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지옥이다. 이 사실에 절박하게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구원의 길이 없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을 언제 고민해봤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는 말은 어

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니고데모도 고민만 했지 해답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것이다.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처음 생겨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십자가를 외쳤다. 50일 전 즉 오순절 이전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빌라도와 그 권세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외치다가 기꺼이 죽임 당했다. 이것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였다.

영생이 실제면 우리가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이라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할 게 있는



일러스트=고은혜

가? 영생이 실체가 되어 본적이 없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고 죄에 묻개고 앉아있는 것이다. 사기꾼 같은 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항상 진리를 배운다고 쫓아다니지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신앙 따

로 삶 따로운 괴물 같은 교인들이 나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예수님을 주요, 선생이라

고 고백했으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가? 이 길밖에는 거듭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37-0235 www.jakinboa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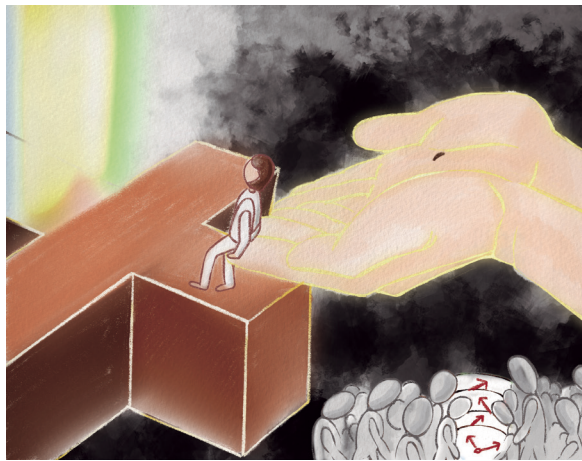
“컴맹인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는 내가 종종 거북이나 달팽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행동이 느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많이 둔하다. 어릴 때부터 영악하거나 여우 같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을 들곤 했다. 학생 때 걱정스러운 엄마의 목소리 “너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떻게 시집 가서 살래?”였다. 또 나는 기계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20대 중반에 모든 면에서 빠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남편과 결혼했다. 삶에서 무엇이든지 정성 들여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나는 기계, 컴퓨터 등 꼭 필요한 것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불편함이 없었다.

홍콩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매일 외식을 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도 영혼의 만족은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후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다. 주로 사역했던 곳이 시골 지역이었기에 나는 주로 현지 교사들에게나 아이들에게 화극 자료, 용판

자료 등으로 그들을 섬겼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없는 그들에게 간단한 시각자료들로 주님을 전했다.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릴 때 내 자료들을 많이 좋아하고 신기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50대 중반이 넘어 다시 하나



일러스트=고은선

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 돌아온 한국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로 문화 충격을 받았다. 중국은 '만만디', 즉 '천천히'의 문화가 지배적인데 한국은 어딜 가나 급했다. 자주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나는 어떨 때 한국 사람들이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일

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깨끗이, 완벽하게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 탕감 받았다는 것을, 무엇보다 헤브론 원형학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어릴 적 꿈이 좋은 선

생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학교에 진짜 교사로 불러주셨다. 니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수업 진행 상황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지금 나는 몸도 튼튼하지 못한 데다 컴맹이었기에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됐다.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모든 수업을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음이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껏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기도실에 앉아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이 내면에 말씀하셨다. “명희야 괜찮아. 지나온 너의 삶도 귀해. 내가 있잖니. 그리고 나는 똑똑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어. 오히려 너같이 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렀지.”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 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5-29)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주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새 피조물 되게 해주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여주신 주님 한 분으로 행복했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다.

지금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손이 아닌 자판으로. 놀라운 장족의 발전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늘 쉽게 교만해지는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 지금을 허락하셔서 문지기라도 감사합니다.

[GPNEWS]

김명희

데이터로 보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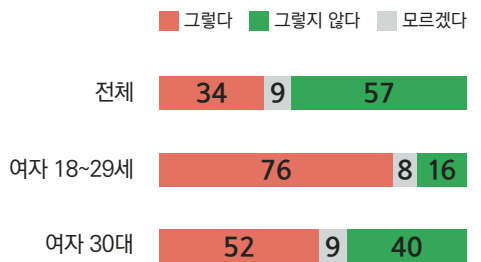
국민의 절반 이상, 동성 결혼·동성 커플 자녀 양육 반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성 결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이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절반을 훨씬 넘었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동성 커플이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57%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세대와 달리 18~29세 여성은 76%가, 30대 여성은 52%가 '동성 커플이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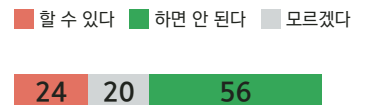
동성 결혼·동성 커플 자녀 양육 인식

동성 커플이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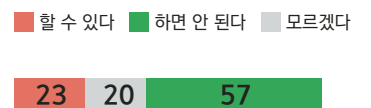


또한 한국리서치의 '2024 결혼인식조사'에서는 동성결혼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각각 56%(남남결혼 하면 안 된다), 57%(여여결혼 하면 안 된다)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남남결혼 할 수 있다 24%, 여여결혼 할 수 있다 23%).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자료: 한국리서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이 세대를 악한 데서 돌이켜주소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탐심과 정욕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 참사랑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中 국경, 철조망 관리 실태 점검 중 뇌물 만연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

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 하자. <편집자>



▲ 압록강변 철책 너머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북한 군인들. 출처: 유튜브 채널 갈렙선교회 캡처

현재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철조망과 잠복초소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국가보위성의 검열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경비대 군관들이 검열 성원들에게 뇌물을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난 1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번 검열은 2023년 말까지 국경 철조망 설치를 끝낼 데 대한 명령이 제대로 관철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20년 코로나 봉쇄로 국경에 철조망 설치 작업을 진행했지만 자재 부족으로 철조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매체 소식통은 “경비대 군관들은 ‘진급해 다른 곳으로 이동되면 그만이니 이번 검열에만 걸리지 말자.’며 온갖 뇌물을 다 쓰고 있다.”면서 “뇌물 비용은 철조망 상태에 따라 다른데 검열 성원 한 사람에게 적게는 100위안 많게는 1000위안 정도를 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뇌물 비용은 나중에 ‘검열 총화 사업’ 명목으로 소대별 세외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소대장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또 군인들의 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 |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북한 당국이 국민들을 위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시설 보수도 하지 못할 형편임에도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악함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검열을 빌미로

뇌물을 주고 받으며 눈속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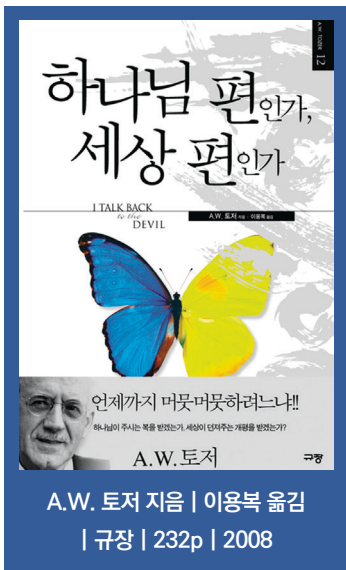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A.W. 토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나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오늘 택하라!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는 회색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회색지대라고 한다. 그러나,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

A.W. 토저는 책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를 통해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어느 편에서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을 도전한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적 진리를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군사로 일어설 것을 도전한다.

이 책의 서두에 결론부터 선포되는 진리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지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만이 백문일답 되심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편에 선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이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요 15:16)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적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이 광신이라고 말하는 때를 살고 있다.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극치를 우리 모두 함께 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열망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또 기독교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완전함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더 이상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에 만족하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저자는 단순 명확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토저는 자아의 진흙 구

덩이에서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즉시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스럽지만 복된 고난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는 의지가 사라진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임을 저자는 도전한다. 이 책을 읽으며 결단해야 할 때가 오늘이고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붙든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전에 섬겼던 모

든 우상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던 그 간절한 음성이, 지금 내게도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 18:21)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되겠다.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 되어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호수아의 간절하고 분명한 물음 앞에 이제 우리 각자가 서 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GPNEWS]

정준영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6. 25 ~ 7. 16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선례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서영숙 신혜경 안민자 안석문 안수경 오금에 오세주 유영권 이도영 이보희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근혜 장옥경 정금자 정범영 정요한 정호진 조형광 최근희 최순임 최영석 최정옥 하은숙 홍성환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나죽교예수사신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독교교회 서원교회교정팀 웹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춘천샘물교회 험시마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케냐 혼드는 Z세대 반정부 시위... 교계 반응은 엇갈려

케냐 정부의 증세 법안에 분노한 청년층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과시하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현지 교계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케냐 정부의 증세 법안에 항의해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39명이 숨지고 361명이 다쳤으며 627명이 체포됐고 32건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노한 시위대가 수도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방화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5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렇듯 격렬한 시위의 배경에는 케냐의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상환하려는 대통령의 증세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케냐는 자국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매년 정부 수입의 37%를 지출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다. 해당 부채의 채권자는 대부분

중국에 있다. 케냐는 2013년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 30억 달러(약 4조 1500억 원) 넘는 빚을 지는 등 2000년 이래 90억 달러(약 12조 4400억 원)의 무거운 대중국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케냐 국내총생산의 70%를 웃도는 액수다.

루토 대통령은 이러한 만성적자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일찌감치 증세를 단행했다.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고 소득세와 전기세 및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세도 8%에서 16%로 늘렸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27억 달러(약 3조 73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격분한 Z세대는 지난달 18일부터 반정부 시위를 시작하고 케냐의 재정적자 문제가 (증세로 해결될 것이 아닌) 정부의 부패와 방만한 지출관리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만연한 부패는 무시하고 서민 증세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 법안 철회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루토 대통령은 한때 시위대에 대한 지지 및 대화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자



▲ 케냐에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대. 출처: 유튜브 채널 Associated Press 캡처

신이 추진하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및 환경세에 대한 증세 계획 일부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무부가 예산 삭감에 따른 2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는 처음 입장을 뒤엎고 연료세와 수출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대의 분노를 부추기며 반정부 시위의 전국적 확대와 의사당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루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반정부 시위는 반역이자 안보위협이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법안을 취소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면서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최근에는 교회 예배당에까지 실탄 사격이 있었다.

현지 언론사 TNX에 따르면 나이로비에 위치한 성공회 올세인트대성당(ASC)은 진압을 피해서 온 3000여 명의 시위대 청년에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위대를 뒤쫓아온 경찰이 예배당에도 실탄과 최루탄을 발사해 일부 시위대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현지 교계 일각에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PNEWS]

C.H.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